

# 10년 고투 끝에 달라진 중국 분유업계

베이징지사

## 중국 주요 분유업체, 온라인판매 플랫폼 구축

- 2008년 멜라민 분유파동으로 외면 받았던 중국 분유업체가 10년에 걸친 대대적인 구조조정과 관리감독 강화 등의 노력으로 크게 달라졌다는 평가다.
- 소비자의 날(3월 15일)을 며칠 앞둔 지난 12일, 페이허(飞鹤), 베이인메이(贝因美), 이리(伊利), 성위안(圣元), 야스리(雅士利), 천러보우(君乐宝) 등 중국 6대 분유업체는 전자상거래업체 징둥상청(京东商城, www.jd.com)과 제휴해 '국산분유대전(国货奶粉盛典)'이라는 온라인판매 플랫폼을 구축하고, 3억1,500만 위안(한화 약 540억 원) 규모의 '중국 영유아 조제분유 품질사랑기금(中国婴幼儿配方奶粉品质关爱基金)'을 설립했다.<sup>1)</sup>

### | JD.COM의 '국산분유대전' 웹페이지 |



출처: <https://sale.jd.com/act/u4txy0d7AhKOe8.html>

1) <证券日报>, "国产奶粉抽检合格率100%6大乳企抱团欲掌控市场主导权" (2018.03.13)

- 알리바바에 뒤이은 중국 2위의 전자상거래업체 징둥상청과 중국 대표 분유업체들이 손잡고 본격적인 온라인 시장 공략에 나선 것은 중국 분유업체가 서서히 힘을 되찾고 있다는 증거라는 분석이다.
- 지난 10년 간의 뼈를 깎는 구조조정과 품질강화 노력, 조제분유등록제 시행으로 인한 저품질 분유제품 퇴출 등은 중국 분유업체가 자신감을 되찾게 된 배경으로 손꼽힌다.
- 중국유제품공업협회(中国乳制品工业协会)의 명예 이사장 송쿤핑(宋昆冈)은 기금설립 발표회에서 “중국 당국의 관리감독기구, 분유기업, 소매업체와 협회 등의 노력으로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는데 비약적인 성과를 거뒀다”면서 “지난 해 질검총국(国家质量监督检验检疫总局)의 국산 조제분유 품질표본조사 합격률이 99.7%로 100%에 육박했다”고 소개했다.<sup>2)</sup>

### 조제분유배합비등록제로 중국 분유시장 개편돼

- 올해 1월 1일부터 조제분유배합비등록제(奶粉配方注册制)가 엄격히 시행되면서 2008년 220만 곳에 달했던 우유목장이 최근 120만 개로 줄었으며, 유제품기업은 2007년 2,000여 개에서 최근 450개로 급감했다. 영유아분유 제조기업도 2008년 300여 개에서 지난 해 말 추산 93개로 감소했다.
- 영세기업이 퇴출당한 시장을 거대기업들이 흡수하면서 중국산 조제분유 품질은 눈에 띄게 향상되고 있다. 특히 멜라민 등 금지성분에 관한 품질합격률이 9년 연속 100%를 기록하면서 중국산 조제분유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점차 회복되고 있다.<sup>3)</sup>
- 중국 분유시장은 고품질시장을 중심으로 확대 개편되어 수입산과 중국산 분유의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. 현재 중국 고품질 조제분유시장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제품은 유기농분유와 양유(羊奶) 분유로, 한국산 유기농 및 양유분유의 맞춤형수출전략이 필요한 때다.

2) “国产奶粉抽检合格率100% 大乳企抱团欲掌控市场主导权”

3) 《新京报》, “注册制重塑婴幼儿奶粉市场格局 半数品牌或将消失” (2018.01.09)